



[2911호] 2026년 2월 1일 **연중 제4주일**



사진 : 거제동성당(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입 당 송 시편 106(105),47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
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오리다.

제 1 독 서 스바니야 예언서 2,3; 3,12-13

<나는 네 한가운데에 가난하고 가련한 백성을 남기리라.>

화 답 송 시편 146(145),6ㄷ-7.8-9ㄱ.9ㄴㄷ-10ㄱㄴ (◎마태 5,3)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1.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
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2.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
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3.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
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 서 코린토 1서 1,26-31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의 약한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5,12

◎ 알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

복 음 마태오 5,1-12ㄴ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영성체 송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참된 행복이란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첫 부분으로, 참된 행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군중을 향해 제시하시는 행복 중 어떤 부분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복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피하고자 하는, 또는 인생에서 겪고 싶지 않은 부정적으로 보이는 가치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단순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살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선언의 첫 부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이는 모두가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나 혼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깊이 인정하는 영적 가난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유함의 추구나 다른 이들보다 윗자리에 서고자 함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존재의 완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며, 그렇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영적 가난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늘 나라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말씀 또한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슬픔이란 우리 인간들이 짓게 되는 죄와 고통받는 이웃들에 대한

무관심, 더 나아가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길로 나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무감각한 마음에 대한 슬픔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슬픔이 우리들 마음속에 존재할 때에야 우리는 현실을 바꿀 힘을 가질 수 있고, 회개와 진리의 추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이러한 슬픔을 간직한 이들을 하느님께서 위로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뒤이어 온유하고 의로움을 추구하며, 자비롭고 평화를 이루며,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역시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될 사람들의 특징을 온전히 보여줍니다. 이런 가치들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 이 세상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라는 희망과 열정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행복이란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고통과 희망의 길에 대한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재설정되는 과정 속에 얻게 되는 선물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하느님 나라의 본질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의 참 행복을 찾기 위해 일상 속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노력해 봅시다.

강지훈 시몬 신부
하늘공원 성사담당



우리 성당을 소개합니다



가제동성당은 시청 근처의 랜드마크로서, 3대가 함께 신앙을 잇는 가족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주일학교와 청년기를 거친 이들이 본당의 주역이 되고, 그 자녀들이 다시 복사단으로 성장하며 생동감을 더합니다. 길과 사람이 모여드는 곳답게 토박이와 전입 교우들이 아름답게 어우러지며, 중년 형제자매들의 술선수범과 신부님들의 따뜻한 사목 아래 평화가 넘치는 담장 낮은 본당을 지향합니다.

■ 주보성인 : 파티마의 성모 ■ 주임 : 김정옥 바오로 신부 ■ 회장 : 홍기곤 바오로

의무감 너머에서 발견한 희망

: 2005년 쾰른 세계청년대회의 여름을 기억하며

2005년 여름, 독일 쾰른에서 열린 제20차 세계청년 대회(World Youth Day)는 제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청년 사목과 봉사를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으로 시작된 여정

처음 WYD를 준비할 때 제 마음을 채운 것은 설렘보다는 무거운 ‘의무감과 중압감’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독일, 그것도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부산교구 순례자 45명(전세버스 1대)을 인솔하여 사고 없이 무사히 다녀와야 한다는 것이 무거운 ‘과제’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니 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눌러, 정작 순례자들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일정표와 인원 점검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교구 젊은이들의 눈빛에서 발견한 기적

하지만 독일 현지에서 마주한 부산교구 순례자들의 모습은 저의 메마른 의무감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낯선 땅에서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고, 전 세계 젊은이들과 어우러져 “베네딕토!”를 외치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수동적으로만 보였던 순례자들이 미사 중에 눈물을 흘리고, 세계의 젊은이들과 뜨겁게 포옹하며 살아있는 눈빛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단순한 여행이 아닌, 살아 계신 하느님을 만나

는 전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리자에서 동반자로, 사랑으로 걷는 길

순례자들이 신앙의 축제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를 지탱했던 마음은 ‘의무감’에서 ‘간절한 바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역할은 그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신앙적 책임을 체험하고 세계의 젊은이들과 호흡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 곧 ‘동반자’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2005년 쾰른의 여름은 제게 “왜 이 일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따뜻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의무감이 아닌,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의 주인공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 길을 걷습니다. 그것이 그해 여름, 라인 강변에서 제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임성환 요셉 신부
2027 WYD 교구대회 사무국장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101.1MHz	울산 FM 93.7MHz	북산(서부산) FM 101.5MHz	마산 FM 101.7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재) 16:50, 23:50 2.2(월)~2.7(토) 강지훈 신부(하늘공원 성사담당)
세실리아의 달콤한 클래식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하느님과 하나되는 하루 
2.1(일) 21:00~22:00 진행 : 김유진 세실리아 <달콤한 클래식> 2월의 첫 주일 프란치스코 성인 선포 800주년을 맞아 아시시로 떠나는 음악 여행				2.6(금) 14:00~16:00 진행 : 김다정 아나운서 1부 <느그 거서 뭐하노> 출연 : 이윤승 레오 (우동성당) 2부 <워십유>				

사랑의 기억은 우리를 나눔의 삶으로 초대합니다

사랑의 기억을 거룩한 유산으로 남기는 삶

2009년 2월 16일, 김수환 추기경님께서서는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은 한국 교회 최초의 추기경으로서, 신앙 안에서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가치를 지켜야 함을 온 삶으로 증언하신 분이었습니다. 군사독재와 사회적 억압의 시대 속에서도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셨으며, 인권이 짓밟히고 진실이 외면당할 때 화해와 용서의 언어로 사회의 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이들, 노동자, 이주민, 장애인과 같

은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시며 교회가 그들의 아픔과 함께 서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후 각막 기증으로 이웃에게 빛을 전해 주셨고, 통장의 마지막 잔고는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내어주신 추기경님은 참된 신앙인이셨습니다.

한평생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로 사셨던 추기경님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느님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허물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에, 추기경님은 모든 이의 ‘밥’이 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기억과 기도, 시복시성의 은총으로 가는 길

추기경님은 우리 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남기신 사랑과 나눔의 정신, ‘사랑의 유산’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추기경님의 삶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일은 단순히 과거만 추억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종’ 김수환 추기경님의 현양과 시복시성의 은총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여정이며, 그분의 영성을 느끼

며 삶을 뒤따르는 과정은 곧 우리 자신이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이를 기억하며 바치는 기도와 정성은 추기경님의 뜻을 잇는 거룩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억과 기도가 모여 김수환 추기경님의 시복시성을 염원하는 큰 기도의 물결이 되고, 그 기도는 다시 우리 모두를 위한 풍성한 은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기경님을 기억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느님께 봉헌하는 향기로운 예물이자,
우리 삶에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간절한 지향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의 현양과 시복시성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이 땅 위에 더욱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함께 모아주시기를 청합니다.



(재)바보의나눔은 김수환 추기경님의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에 설립된 특례기부금단체(전문모금기관)입니다. 추기경님이 꿈꾸셨던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국내외 도움이 손길이 절실한 이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바보의나눔 02-727-2506, www.babo.or.kr

김수환추기경연구소 02-2164-4467, <http://cardinal.catholic.ac.kr>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공원 054-383-1922, <http://www.cardinalkim-park.org>



기부신청 바로가기

사회사목국 별관 기공식

사회사목국(국장: 유연창 신부)이 지난 1월 19일(월) 별관 기공식을 가졌다. 사회사목국 별관은 지상 3층 규모로 건설되며, 부산가톨릭지체장애인복지회의 모임과 미사를 비롯해 사회사목국 행사에 활용될 예정이다.



2027학년도 지원자 동계 피정



1월 17일(토)~18일(일) 분도 명상의 집
성소국(국장: 최치원 신부) 주관

주일학교 교리교사 피정



1월 17일(토)~18일(일) 마산 가톨릭교육관
청소년사목국(담당: 조재문 신부) 주관

오륜대순교자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봉헌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종삼 1,000,000	유소원 300,000	유준기 200,000	유국환 200,000	김옥화 100,000	노태숙 100,000	박숙자 100,000	장봉화 100,000
박진영 100,000	류동하 50,000	류준하 50,000	박상심 30,000	왕관수 30,000	정수빈 30,000	지수미 30,000	김용례 10,000

[1월 18일~1월 24일]

합계: 2,430,000원

누계: 4,381,387,134원



성지 홍보영상

농협 301-0629-8734-11, 부산 113-2014-1175-03 (예금주: 천주교부산교구)

* 전자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기부 후 오륜대순교자성지 사무실(051-515-0030)로 개인정보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언어

אֱלֹהֵי אֱלֹהֵי לְמָא שְׁבַקְתָּנִי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아람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외치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엘로이'는 '나의 하느님'이라는 뜻이고 '레마'는 '왜'라는 의문사이며, '사박타니'는 '당신이 저를 버리셨다'라는 뜻입니다. 문장 전체를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입니다. 이 외침은 시편 22,2를 아람어 식으로 표현한 것으로 아람어를 사용하시던 예수님께서 직접 외치신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절망 가득한 말씀을 외치셨을까요? 하느님께서 정말 당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까요? 이

는 시편 22장을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시편 22장은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라는 절망 가득한 분위기로 시작되지만 22절로 넘어가며 완전히 분위기가 바뀝니다. 시편 저자는 하느님이 절망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노래하며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역시 부활, 승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외침은 결국 하느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부총장)

교 구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부산)

· 2.6(금) 13:30 목주기도, 14:00 미사
· 교구청 5층 사랑실 / 문의: 629-8760(성소국)

본 당

대연성당 영어교실

화목반/수금반: 기초반, 중급반, 회화반
10:00~10:50, 11:00~11:50, 12:00~12:50
개강: 2.3(화) / 문의: 010-8501-9250

길천성당 사무장 구함

자격: 한글 및 엑셀 가능한 자 / 구비서류: 교적
사본,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본당신부추천서
문의: 727-7936, 010-3920-5979

기관·제 단체·위원회

오순절평화의마을 2월 김해후원회미사

김해: 2.2(월) 10:00 임호성당
문의: 782-0765

정의평화위원회의 아름다운 세상을 여는 미사

· 2.2(월) 19:30 / 가톨릭센터 3층
새 사제들과 함께 / 초대문의: 465-9508

원로 사목자를 위한 미사

· 2.9(월) 14:00 / 교구청 2층 성당
문의: 010-4541-3239(비아회)

부산가톨릭평화방송 후원회 미사

양산: 2.9(월) 10:00 남양산성당
울산: 2.10(화) 10:00 야음성당
부산: 2.12(목) 10:30 우동성당
문의: 600-8800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월미사

· 2.3(화) · 중앙성당 대성전
10:00 성시간, 11:00 월미사(양형영성체)
주례: 조항희 신부 / 문의: 466-2290

군중후원회 미사

울산: 2.6(금) 10:00 옥동성당
주례: 류창훈 신부(특수전사령부 성례오성당)
부산: 2.19(목) 10:30 금정성당
주례: 전재경 신부(51지역방위사단 전승성당)
문의: 751-3610, (052)274-3608

파티마의세계사도직 기도 모임

· 2월 첫 금요일 미사
· 2.6(금) 22:00 (미사 22:30)
· 2월 첫 토요일 신심미사
· 2.7(토) 11:00 미사 / 내용: 가정 봉헌식
봉헌하실 분은 사전에(7일전) 연락 바랍니다.
· 2월 목주 100단 기도회
· 2.9(월) 09:30
문의: 646-3746, 010-6764-3746

음악교육원 울산 정규과정 모집

개강: 3.6(금) 19:00~22:00 우정성당
등록마감: 2.15(일) / 문의: 519-0475
대상: 성가대원 포함 누구나

음악교육원 정규과정 모집

등록마감: 2.15(일) / 개강: 3.3(화) 주간
(10:10-15:20) / 야간(18:50-22:00)
대상: 성가대원 포함 누구나 / 문의: 519-0475

로사리오의집

[하느님의 자비신심 월례피정] 2.7(토)
주제: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관상
[하느님의 자비신심 바로알기] 2.28(토)
하느님의 자비주일, 하느님의 5단기도, 자비상
본, 자비주일 / 문의: 010-7155-3498

성령새신 봉사회(영성의집)

· 수요치유기도회와 미사: 2.4(수) 13:00~15:30
· 매월 첫째 금, 토 신심미사
· 2.6(금) 19:40~7(토) 새벽 01:00
· 젊은이 성령기도회(목주기도+찬양미사)
· 울산 영성의집 3층: 2.5(목) 19:30
· 516차 교구성령묵상회(일반)
· 2.6(금) 18:00~8(일) 17:00
· 517차 교구성령묵상회(젊은이)
· 2.27(금) 16:00~3.1(일) 17:00
문의: (055)382-9465

성령새신 봉사회(울산 영성의집)

· 화요 치유 낮 기도회
· 2.3(화) 13:00~15:00(14:20미사)
· 목요 밤 미사: 2.5(목) 20:00~22:30
문의: (052)244-7014

가톨릭센터 직원 구함

서류: 교적사본, 이력서, 본당신부추천서
(사제관 가사도우미) / 문의: 462-1870

부산가톨릭사진가협회 회원모집

부산교구 주보사진 촬영과 사진을 통한 전교활동
및 교회 역사 기록에 관심있는 신자(50대 이하)
문의: 010-3558-9336, 010-3544-1035

하늘공원 설명절 묘지 방문 안내

설 당일(2/17) 혼잡이 예상되니 명절 전후로
분산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4~17 동안 일방통행입니다.
입구는 후문을 이용하여 주세요.

<설 활동 위령미사 봉헌 (2/17)>

09:30 제2봉안당 성전 (하늘공원 담당 신부)
10:30 제1봉안당 성전 (총대리 신호철 주교)
11:00 제2봉안당 성전 (교구장 손삼석 주교)

- ▶ 미사예물 접수: 사무실
전화 접수 가능 (055)374-8733
- ▶ 봉안당 음식반입 불가(상차림 금지)
- ▶ 꽃(국화)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조화 반입 금지)
- ▶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부산 체나콜로(다락방) 기도회 신년대피정

- 2027년 세계청년대회를 티옴신 성모님께 의탁하며

일시 및 장소 2.4(수) 10:00 주교좌 중앙성당

[강의]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 교구장 귀도 갈레세 주교
[미사(15:50) 주례] 부산 교구장 손삼석 주교
[문의] 010-8879-2376

*2월 월미사(2.17)는 없으며, 신년대피정으로 봉헌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씨 피 여행사

4/15 이탈리아, 발칸, 메주고리에 13일
5/17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 13일
6/8 동유럽, 발칸, 메주고리에 12일
www.cptravel.co.kr 010-3837-6434

성 모 치 과

임플란트·심미보철·보철틀니
송치원 라운센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역 2번출구 80m

미래투어(주) 성지순례

대전교구 3곳, 1차 3/14(토), 2차 21(토)
6:30 서면1대+동래1대 출발 - 청양
다락골(청양), 도암골(부여), 진산(금산)
우중환(리차드) 010-3720-0303

스마일정경우비노의학과

전동아대병원 비뇨기과 과장/주임교수
전립선, 성기능, 요실금, 결석, 남성수술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타워메디컬
744-8181, 010-5616-8600

삼성내과MR영상의학과의

갑상선/당뇨센터, 위/대장 내시경
전문의 14명(여의사 5명)
박인호(루가), 서수홍(라파엘)
하단역 2번출구 208-5566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형사, 행정, 가사 등 제반분야
법률상담 / 대표변호사. 정민(가브리엘)
714-3681, 010-9594-2360
부산법원 정문 맞은편 골목 와우빌딩 2층

눈 시 원 안 과

백내장, 노안교정, 라식/라섹, 드림렌즈
전. 굿모닝 성모안과 공동원장
이현석(분도) 631-6622
범내골역 2번출구 앞 제2향운병원 4층

송월타월 부산진대리점

SINCE 1965
(부산진시장, 우리은행 옆)
632-5690, 010-4807-5690
양홍식(토마스) 유명애(루시아)

제44회 부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 2.28(토) 19:30 · 주교좌 중앙성당
J.HAYDN "Nelson Mass"
지휘: 이성훈, 이태영, 윤비연
전석 무료 초대 / 문의: 010-9829-8181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바랍니다

라우다페 윈드앙상블 단원모집

클라리넷, 색소폰, 트럼본 등 각종 관악기를 연주할 수 있거나 배우고 싶은 교우
연습: 매주 목요일 19:00 부산가톨릭대 음악교육원 / 문의: 010-9503-0977(단장)

수도회·타 교구·기타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후원미사

· 2.6(금) 10:30 · 남천성당
문의: 582-1774, 010-9081-1743

밀양가르멜 수녀원 2월 후원 미사

· 2.24(화) 10:30 (이번달만 4째 화요일)
· 남천성당 / 주례: 박종주 신부
문의: (055)353-6597

포콜라레 청년 피정

· 2.8(일) 14:00~18:00
· 부산가톨릭센터 공간101.1
대상: 18세~35세 미혼청년 누구나
참가비: 1만원 / 문의: 010-5592-7905

곶베틀알프란치스코수도회 성소모임

· 매월 넷째주 주일 14:00
· 부산 대연성당 성 안토니오 수도원
문의: 010-4344-1997(권정대 수사 신부)

부산 재속프란치스코회 회원모집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살고자 하는 이들을 환영 / 문자문의: 010-2783-4532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대상: 개인 및 각 본당 단체에 맞는 프로그램 진행
제주 순례: 2.6~8, 2.27~3.1, 3.27~29, 5.9~11, 5.15~17, 6.19~21
추자도 성지순례: 3.5~8, 3.12~14, 3.18~21, 5.3~6, 5.29~6.1, 6.4~7, 6.12~14
·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한솔국악성가합창단원모집

모집기준: 합창단 및 성가대 유경험자
지도: 강수근 신부(국악성가연구소)
활동지역: 부산교구 / 문의: 010-8353-6689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겨울성소피정

· 2.27(금)~3.1(일)
· 서울 평창동 안토니오 피정의집
대상: 수도생활에 관심 있는 35세 이하 미혼 남성 / 문의: 010-6608-3217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심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도 여행과 올레길 성지순례
문의: (064)796-4182, (02)773-1455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겨울한라산 눈꽃산행과 제주성지순례: 2.20~22, 2.26~28 / 3.1~4, 3.29~31, 4.11~14
3월 사순시기 제주성지순례, 올레길, 자연순례 차귀도 포함: 3.7~9, 3.12~14, 3.16~18, 3.26~28
엠마오 떠나는 4월: 4.6~8, 4.7~9, 4.16~18

자비와 회복학교(온라인)

2026년 1학기 모집 안내

· 3.12~6.25 매주 목 21:30~22:30(16주)
회비: 1학기 과정 15만원 / 지도: 김태광 신부
문의: 010-8911-5957, mercyschool.kr

예수회센터 불학기 동영상 강좌

구약성경 아카데미: 귀환시대(주원준 박사)
성경대학: 요한복음2(송봉모 신부) *7회
르네상스 전기에서 20세기 성미술(박혜원 강사)
신의 은총, 건반위의 기도(노애리 박사)
나는 너를 사랑하였다(최지원 수녀)
그리스도인의 내적 돌봄: 내적 자유(홍기령 교수)
· 3월 개강(각 10-12주) *매주 동영상 링크 발송
신청: (02)3276-7733, center.jesuit.kr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안내

성경완독: 3.6(금)~14(토), 4.17(금)~25(토)
문의: 010-3340-0201(황성도미니코피정의집)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2박3일: 3.6(금)~8(일)/6.12(금)~14(일)
3박4일: 2.7(토)~10(화)/3.12(목)~15(일)
4박5일: 2.23(월)~27(금)/5.1(금)~5(화)
8박9일: 3.19(목)~27(금)/4.10(금)~18(토)
40일: 4.6(월)~5.15(금)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수강료: 1만원
· 서울 중구 장충단로 4길 14
문의: (02)2274-1843, 4/www.cdcc.co.kr

예수회 수도생활 체험학교

-나이 들, 새로운 소명

· 3.16~25, 4.20~29, 5.18~27, 6.15~24
· 강원도 홍천(10일, 100만원) / 지나온 삶을 성찰, 노년을 의미 있고 충만히 하는 프로그램
대상: 60세 이상 / 문의: 010-7451-9707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 학생모집

학력인정 대안학교
모집: 중2~3학년, 고1~2학년
무상교육(수업료, 기숙사 전액 무료)
문의: (031)584-1130 /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novitas-s.goegp.kr) 참조

그리스도의례지오수도회 성지순례 모집

1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14박15일
7월: 캐나다 성모성지 9박10일
11월: 멕시코8칸쿤 성모성지 10박11일
문의: 010-5735-4578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2026학년도 1학기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1.26(월)~2.20(금)

!교육기간: 3.3(화)~6.29(월)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http://edu.cup.ac.kr>) ▶ 회원가입 ▶ 로그인 ▶ 희망강좌 수강신청 ▶ 수강료 입금 ▶ 신청 완료

!문의: Tel. 051)519-0493~5, Tel. 051)519-0497

!수강료 입금계좌: 부산은행 112-01-003956-2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신청
바로가기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카오톡 채널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뉴욕 초이스치과

임플란트, 심미보철, 틀니
미국 임플란트 전문의 최상종
866-2806, 2807
연산역 5번출구 E메디컬센터 5층

정대수맑은신경과

전)부산대학병원장 치매, 어지럼
대한신경과학회 회장 두통, 고혈압
부산대학교 부총장 불면증, 뇌졸중
남천역 3번출구 612-6100

우리자동차매매상사

자동차 매매·교환·위탁·폐차·정비
조남철(네레오) 010-3573-8797
현대자동차 및 신차의 모든 차량
조정연(엘리아) 010-9333-4784

법무법인 올강

대표변호사 임경표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교통사고
손해배상, 회생, 파산 및 각종 법률상담
717-2570

김병호정형외과

척추관절/통증재활/도수/물리치료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 김병호 루카
752-0020 수영구 수영로581
광안역 4번출구(4/5층)

가톨릭트래블

산티아고 순례길 42일 800km
루르드, 파티마 성지순례 일정
3/28 (599만원+2200유로)
catravel.co.kr 070-4086-0207

이삿짐은 우리트랜스

돌아가신 분 유품도 처리해드립니다
대표 변성만(요한) 권명숙(로사리아)
582-1414
010-4042-8662

독일보청기

복지카드소지자(수급자 무료, 일반90%)
세계6대브랜드 보청기 모두 취급 판매
김무나(글라라) 교우특별할인
803-5588, 1871(빨간색간판)